



6일 오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콜롬비아와의 경기를 앞둔 한국 대표팀이 콜롬비아 보고타 파르케 살리뜨레 에스타디오에서 열린 팀 훈련에서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프리미어리그 볼까 분데스리가 볼까

박지성·지동원 VS 손흥민·구자철 새 시즌 출격대기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1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새내기' 지동원(선덜랜드)이 2011-2012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나란히 날아올라 준비를 하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함부르크SV), 구자철(볼프스부르크)도 최고의 시즌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산소탱크' 박지성이 오는 7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웹블리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잉글랜드 커뮤니티 실드 경기로 2011-2012 시즌의 스타트를 먼저 끊는다.

정규리그 개막에 앞서 열리는 커뮤니티 실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과 FA컵 챔피언 간의 단판 승부로 새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다. 올해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정상에 오른 맨유와 FA컵 우승팀 맨시의 '맨체스터 더비'로 치러진다.

지동원도 새 팀 선덜랜드에서 착실히 존재감을 쌓아가고 있다. 지동원은 3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달링턴에서 열린 5부리그 팀 달링턴FC와의 평가전(3-0 선덜랜드 승)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려 잉글랜드 진출 이후 처음 골 맛을 봤다. 스티브 브루스 감독 대신 경기를 지휘한 에릭 블랙 코치는 지동원의 첫 골에 "스트라이커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격점을 줬다. 오는 13일 리버풀과의 시즌 개막전 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독일 프로축구에서는 손흥민과 구자철이 팀 준비를 마쳤다. 올해 19살인 손흥민은 리그 개막을 앞두고 열린 평가전에서 11차출 출전해 18골을 터뜨리는 골 감각을 앞세워 이번 시즌 눈부신 활약을 예고했다. 6일 오전 3시30분 지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지동원

시즌 우승팀 도르트문트와 시즌 개막전을 치르는 손흥민은 상대팀의 일본 국가대표 출신인 가가와와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2010-2011시즌 도중 볼프스부르크에 합류한 구자철도 6일 오후 10시 30분 쾰른에서 벌어지는 FC 쾰른과의 대결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콜롬비아 무조건 잡고 16강 간다”

U-20 월드컵 내일 10시 조별리그 최종전

김경중-이용재-백성동 공격 라인에 기대

'4강 신화' 재현을 목표로 2011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한 태극전사들이 '개최국' 콜롬비아를 제물로 2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하겠다는 의욕을 다지고 있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은 오는 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의 네메시오 카마초 경기장에서 홈팀 콜롬비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A조 최종전을 치른다.

3일 프랑스(승점3·골 득실-1)와의 조별

리그 2차전에서 1-3으로 패해 1승1패(승점 3·골 득실0)를 기록한 한국은 프랑스와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2연승의 콜롬비아(승점 6·골 득실+5)에 이어 조 2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은 6일 콜롬비아전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를 따지게 된다. 프랑스가 3차전에서 최약체 말리(2패)를 상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콜롬비아를 맞아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만 편안하게 16강 고지를 바라볼 수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이 콜롬비아를

이기는 것이지만, 콜롬비아가 말리와 프랑스를 상대로 6골을 몰아넣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해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전망이다.

만약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2년 전 이집트 대회(8강)에 이어 두 대회 연속 16강 진출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광중 감독은 4강 신화 재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16강 고지에 오르기 위해 콜롬비아전에 총력을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콜롬비아전을 앞두고 "공격의 마지막 세밀한 부분이 미흡하지만 현명하게 잘 준비해서 16강 진출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콜롬비아전을 앞두고 프랑스전에서 빛을 발했던 프리킥과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특점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황도연(전남)이 부상으로 빠진 수비라인의 조직력을 보완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왼쪽 중앙이 좋지 않아 프랑스와 2차전 후반에 투입됐던 공격수 이용재(남트)는 상대가 호전돼 콜롬비아전에서는 주전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서 좌·우 날개인 김경중(고려대)-백성동(연세대) 조합과 공격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킥 상황에서는 김영욱을 앞세워 헤딩력이 좋은 수비수 임창우(울산)를 활용한 세트피스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조선대병원 이준영 정형외과 교수를 U-20 월드컵 대표팀 본선 주치의로 임명했다. 광주FC 주치의이기도 한 이 교수는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경우 대표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전남 홈 팬 만난다

울스타브레이크를 보낸 광주·전남이 홈팬들을 만난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경남 FC를 상대로 2011 K리그 2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전남 드래곤즈는 8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광양전용구장에서 대결을 벌인다.

지난달 24일 경기를 끝으로 휴식에 들어갔던 6일 K리그가 재개된다. 목표와 광주를 오가며 구슬땀을 흘린 광주는 경남을 꺾고 10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광주는 12위에 머물며 7위 경남에 뒤져 있지만 신인왕 후보로 급부상한 미드필더 이승기와 재활을 끝낸 수비수 박병주를 필승 카드로 내세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중요에서 불매급을 책임지고 있는 이승기는 팀 역사의 발판을 놓은 것은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긴 뒤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루지 넘치는 플레이의 이승기는 팀의 주포들과도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광주 조직력의 중심에 서있다.

발목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던 박병주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넘치는 파워로 맨투맨 마크에 강점을 보이는 박병주는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이며 경남주까지 투입된다면 광주의 수비라인도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치열한 선두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4위 전

광주, 내일 경남FC와 일전

전남, 인천 상대 승점 사냥

남은 10위 인천을 상대로 승점사냥에 나선다. 2위 포항과 6위 서울까지의 승점차가 4점에 불과해 매 경기 순위가 뒤바뀌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후반기 3경기에서 2승1무로 승점 7점을 챙기며 2위 포항을 승점 2점차로 바짝 쫓았던 전남은 울산과의 19라운드에서 0-2로 지면서 상승세가 꺾였다.

하지만 전남은 후반기 4경기에서 10득점을 기록하는 등 강화된 화력을 보여줬다. 전남은 레이나와 웨슬리를 전면에 내세워 인천 골문을 겨냥한다는 계획이다. 토종 공격수 김명중도 지동원의 공백을 채울 후보로 레이나 웨슬리와 함께 삼각편대를 구성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함평다이내스티CC

혹서기 그린피 인하

31일까지 ... 주중 3만원·주말 3만9천원 내리

사계절 양산지 함평다이내스티CC가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린피를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은 골프 애호가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다.

이에 따라 함평다이내스티CC의 주중 그린피(카드비 포함)는 1인 14만원에서 3만원 인하한 11만원으로 조정된다.

주말에는 3만9000원을 내던 16만원을 받는다.

함평다이내스티CC 관계자는 "혹서기에도 골프를 즐기는 내고객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그린피를 내렸다"며 "최상의 코스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임병영씨 세계태권도선수권 품새 금



임병영(50) 전남태권도협회 심사분과 위원장이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임병영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개최된 제6회 WTF(세계 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품새 선수권대회 마스터부Ⅱ(51~60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는 52개국 571명의 선수(남자 324·여자 247명)들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고, 임 위원장은 8.05의 점수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9개·은메달 1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